

# 한국의 서양음악 수용과 발전에 있어서 양악대의 영향

이세라(한국학중앙연구원)

## 머리말

양악대는 대한제국시기 형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악기 편성의 군악대를 의미한다.<sup>1</sup> 이는 왕실을 호위하는 군대인 시위연대 내에 소속된 군악대였다. 이 양악대는 단순히 황실소속의 악대차원에서 더 나아가 한국 양악문화의 근간을 이룰 만큼 큰 영향력을 미친 요소이다. 지금껏 양악대의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악대로서 위치만 부각되었을 뿐, 양악대가 한국의 서양음악 문화에 끼친 여러가지 중요한 영향들은 소홀이 다루어져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양악대가 한국의 서양음악의 수용과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양악대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 1. 양악대 설립이전 서양음악문화 유입현황

19세기 중엽부터 서구의 열강들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아시아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이들은 신식무기를 앞세워 아시아의 각국에 불평등한 개항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조선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나라들은 강력한 근대국가를 만들어 서구의 이러한 침략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양열강의 강압에 못이겨 조선은 결국 문호개방을 수락하게 된다. 그리고 문호개방과 관련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약 체결 시 조약 상대국가의 군악대 연주를 통해 서양음악의 실재를 접하게 된다. 그 예로 1883년 11월 26일에 조 . 독 조약체결을 축하하기 위해 입항한 독일 라이프찌히 함대의 해군 군악대가 서울의

---

<sup>1</sup> ‘군악대’라는 명칭은 일찍이 1895년 군제개혁에 의해 신군제가 들어서고 이러한 신식군대내에 편성되었던 악대에도 사용된 용어이므로 1901년 에케르트 지도하의 군악대와는 혼동의 소지가 있기에 본고에서는 ‘양악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외아문에서 첫 연주를 하였다.<sup>2</sup> 이외에도 각국의 군대가 인천에 입항하여 서울로 들어올 때 마다 40-50 명으로 구성된 군악대를 선두로 장엄한 행진곡을 연주하면서 거리를 행진하는 광경은 그 당시로는 경의의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sup>3</sup>

이시기에 발행되던 관보의 성격을 띤 ‘한성순보’<sup>4</sup>도 국제적인 견문을 넓히기 위해 당시의 국제정세와 외국의 양악문화를 소개하기 시작한다. 1884년 3월 8일자에는 미국의 병선이 상해에 정박하면서 해군 군악대와 의장대등의 퍼레이드가 있었다는 소식을 소개하기도 하였다.<sup>5</sup>

또한 영국과의 수호통상조약 후에는 100분의 10의 세금을 내고 팔음합(축음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sup>6</sup> 일본으로부터 악기를 45원어치 수입하기도 하였다.<sup>7</sup>

이와 더불어 악기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도 생겨났다. 1884년 인천에 도착한 카를 볼터(Karl Wolter)는 '세창양행(世昌洋行)'이라는 조선주재 독일의 무역회사의 책임자로 들어와 악기를 포함한 외국물품을 유통시키기도 하였다.<sup>8</sup>

이렇듯 서구에 문호가 개방된 후로 서양의 음악문화가 서서히 조선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밖에 선교사들과 그들이 세운 학교와 교회에서도 서양음악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885년 미국인 선교사인 아펜젤러(Henny G. Appenzella)와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가 내한하면서 기독교의 전파와 더불어 찬송가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은 기독교계 학교를 짓고 선교를 위해 찬송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 등의 학교에서는 찬송가를 가르치기 위한 음악수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찬송가의 반주로 풍금을 사용함으로써 서양악기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전문음악인이 아니었던 만큼 서양음악의 체계적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

<sup>2</sup> 노동은, 『한국근대음악사 1』, 서울:한길사, 1995. p.406.

<sup>3</sup> 장사훈, 『여명의 동서음악』 서울:보진재. 1974. p.176

<sup>4</sup> 1883년(고종 20)에 창간된 한국 최초의 근대 신문. 관보이며 10일에 1회씩 발간하였다.

<sup>5</sup> 노동은, 위의 책, p.407

<sup>6</sup> 『한성순보』 1884년 6월 23일, 영국과의 통상조약, 海關稅則 中 第 4 等 100 分의 10 을 세금으로 내는 貨

<sup>7</sup> 『한성순보』 1884년 5월 15일, 日本官報의 朝鮮貿易經緯表 收錄

<sup>8</sup> 『한성순보』 1886년 2월 22일, 獨逸常事 世昌洋行의 告白; 노동은 위의 책, p.407

## 2. 양악대의 설립과 에케르트

양악대의 창설로 인한 서양음악의 수용은 외부로터의 수동적 유입이 아닌 능동적 수용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양악대의 창설은 러시아 황제 리콜라이 2 세의 대관식이 참가한 민영환 일행의 제안으로 이루어 졌다. 당시 정부는 민영환을 전권대사로 임명하여 1896 년 4 월부터 동년 10 월까지 대관식 참가와 함께 선진제국의 실정 시찰을 겸한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대표단 일행은 일본, 미국, 러시아등 여러나라를 방문하고 귀국 후 군대의 사기 고양을 목적으로 하는 서양식 군악대의 창설을 제안 하였다.<sup>9</sup> 당시 조선은 대외적으로는 서구 열강들의 압력과 대내적으로는 근대화에 대한 열망으로 강력한 근대국가를 만들고자 1897 년 8 월 12 일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국왕의 지휘를 황제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황제에게는 그에 걸맞는 힘과 상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프로이센의 해군제독으로 활동하던 Heinrich 황태자가 1898 년 7 월 28 일에 부산에 도착해 서울을 방문하고 떠났는데 이때 황태자와 그의 일행중에 포함된 군악대의 모습에 크게 자극을 받았다.<sup>10</sup> 이에 민영환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왕실을 호위하는 시위연대 내에 군악대를 설치하기에 이른다.

군악대의 기초 설계는 당시 궁내부 고문관이었던 미국인 샌즈(W.Sands:山島)와 전 해관 총세무사였던 브라운(J. MacLeavy Brown:朴卓安)이 담당하였으며<sup>11</sup> 광무 4 년(1900 년)에 군악대 창설을 공포하게 된다.<sup>12</sup>

새로 창설된 군악대의 교육을 위해서는 당시 외부대신 박제순과 주한독일공사 바이페르트와 협의 끝에 에케르트가 추천되었다.<sup>13</sup> 독일인 에케르트는 프레라우스와 드레스덴의 음악학교에서 오보에와 작곡을 전공한 음악인으로 20 년 동안 일본 군악대를 지도한 경력이 있었으며, 초빙당시 베를린에서 프로이센의 육군 군악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에케르트는 1901 년 2 월에 서울에 도착했다. 양악대원은 1 차로 1901 년 3 월에 나팔수 중에서 50 명을 선발하여 4 월부터 교육에 들어갔다. 그 후 1904 년(광무 8 년) 봄에 2 차로 일반인 중에서 50 명을

<sup>9</sup> 이강숙외, 『우리양악 100 년』, 서울:현암사, 2001. p.46.

<sup>10</sup> 구한국외교문서 제 16 권 덕안(2), 1966, 37 면

<sup>11</sup> 장사훈, 앞의책,p.177.

<sup>12</sup> 『관보』 구한국 의정부총무국 관보과 발행 제1764호 : 이유선 『한국양악100년사』, 음악춘추사, 1985. p.69

<sup>13</sup> 노동은. 앞의 책, p.487

모집하여 2 개소대를 1 개 중대로 편성하였으며, 1 개 소대는 연주대로 구분하여 중대장 1 명, 소대장 2 명, 서기 2 명, 정교군악지휘자 1 명, 1 등 군악수 1 명과 나머지는 악수로 구성하였다.<sup>14</sup>

악기는 에케르트가 가져온 것과, 1898 년 러시아에서 구입하여 당시 무관학교 창고속에 보관되어 있던 러시아 군악기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5</sup>

에케르트는 매일 6 시간 이상 군악대를 연습시켰다. 오전에는 음악이론과 독보법등의 학과 교육을 3 시간 행하였고, 오후에는 악기의 연습을 역시 3 시간으로 하는 등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sup>16</sup> 이러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습을 통해 군악대는 비교적 단기간에 서양음악의 기초이론 등을 습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최초로 전문음악인에 의해 양악의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에케르트에게서 체계적인 서양음악교육을 받은 이들이 바로 한국에서의 양악교육의 현장으로 흡수되었으므로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3. 양악대에 의한 서양음악의 수용

1901 년 설립된 양악대는 1907 년 군대해산으로 인해 함께 이왕직양악대로 명칭이 바뀔때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조선의 음악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양악대의 초연은 1901 년 9 월 7 일 고종황제의 만수성절에 이루어진다. 양악대의 데뷔는 신선하고 강렬했다. 연주는 갈채를 받았으며 청중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당시의 영문잡지 <The Koera Review>는 그 인상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sup>17</sup>

“... 이번 축하연에는 많은 내외 귀빈이 모였는데, 황제의 탄신을 축하하기위해 지난 9 월 7 일 아침에 궁정에 참석한 외국 손님들에게 특히 기억될 만한 것은 에케르트 박사의 지도로 훈련을 받은 새로 조직된 군악대의 첫 연주회였다. 이 악단의 세련되고 예의바른 총 27 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불과 4 개월의 훈련으로 외국의 악기를 그렇게 훌륭히 다룰 수 있다고 하는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 날씬한 제복, 번쩍거리는 악기들, 정확한 박자, 흐르는 듯한 리듬과 하모니, 이런 모든 것이 한데 어울려

<sup>14</sup> 남궁요열, 『개화기의 한국음악』, p.56 : 이강숙의 『우리양악 100 년』, p.48.

<sup>15</sup> 이정희, “대한제국기 군악대 재고” 2008 난계국악학술대회, p.198.

<sup>16</sup> 남궁요열 『개화기의 한국음악』

<sup>17</sup> 남궁요열, 위의 책, p.68.

상상외의 효과를 올렸으며, 청중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박수갈채는 그칠줄을 몰랐고, 이대로만 간다면 얼마 안가서 이 악대는 동양에서 경쟁할 악대가 없게 될 것이다. ...."

이 초연에서 연주된 곡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나<sup>18</sup> 이날의 공연은 성공적이었으며, 최초로 우리나라 국민에 의해 서양음악의 연주가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초연을 시작으로 양악대는 왕실의 여러 의식과 국가적 행사에 동원되어 연주를 하게된다.

양악대의 연주 기록을 보면, 고종의 만수성절, 계천기원절(양력 10 월 12 일), 황태자 천추경절(음력 2 월 8 일), 국가간의 조약체결, 각국공사와 영사를 비롯한 외국인의 영접, 러일전쟁 전승기념식, 장춘단 제향 등의 여러 행사에서 연주를 하였다.<sup>19</sup>

이러한 연주를 통해 당시의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음향을 접할 수 있는 경험을 안겨주었다.

민간에로의 서양음악 보다 직접적인 보급은, 양악대가 1902 년 6 월, 파고다 공원 근처로 양악대의 관사를 옮기면서부터 시작된다. 에케르트는 군악대원의 합주훈련을 겸한 시민음악회를 매주 목요일 팔각정에서 개최하였다.<sup>20</sup> 이러한 연주회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서양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양악대가 연주한 곡들은 서곡, 왈츠, 모음곡, 가곡, 행진곡, 각국의 국가등 다양했다.

증보문헌비고에 양악대의 연주곡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송방송의 연구로 악곡명이 고증된바 있다.<sup>21</sup>

---

<sup>18</sup> 당시 선교사로 있던 H.N.알렌의 기록에 의하면 이날 연주회에서는 두편의 양악을 연주하였다고 하며, 1922 년 최남선등이 발행한 주간잡지 『동명』에는 이 두곡은 이태리 가곡중 간단한 것 한국과 독일행진곡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동명』 1922 년 11 월, 에케르트의 장녀 아말리에의 글에서는 에케르트가 작곡한 한국국가등을 연주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어서 좀 더 확인해야할 사항이다.

<sup>19</sup> 이정희, 앞의 글, p.216

<sup>20</sup> 남궁요열, 앞의 책, p.86.

<sup>21</sup> 송방송 “대한제국시절 군악대의 공연양상” 『한국음악사학보』 제 35 집, 2005. p.104.

<표 1> 양악대 연주활동의 종목별 일람표<sup>22</sup>

나라이름	애국가	국민가	행진곡	가곡	무도곡	기타
대한제국	○		○			○
일본	○		○	○		○
청국				○		
영국	○	○			○	
미국	○	○	○			
프랑스	○			○	○	
독일	○	○	○	○	○	
러시아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이태리	○			○		
스페인				○		

<표 1>의 연주곡목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종류의 악곡들을 연주한 것을 알 수 있다. 양악대로 인해 서양음악의 기악곡의 여러 장르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었으며 한국의 양악문화의 근간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양악대 해산 후에 양악대 대원이었던 이들에 의해 학교의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므로 이시기 양악대의 연주곡목은 그 이후의 한국의 양악 특히, 기악의 기본 레퍼토리로서 작용하였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양악대는 서양 악기의 유입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 에케르트(에케르트)는 조선에 입국 시 52 점의 악기와 악보를 가지고 왔는데, 이 악기들은 목관, 금관, 타악기 등 이었다.<sup>23</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관악기들이 에케르트 입국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악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sup>22</sup> 송방송, 앞의 글, p.104.

<sup>23</sup> 노동은, 앞의 책,

없었기 때문에 창고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가, 에케르트가 군악대를 지도하면서부터 비로소 사용되어 진 것으로 보인다.

에케르트의 군악대가 사용한 악기들은 『증보문헌비고』에 한문으로 번역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장사훈<sup>24</sup> 과 노동은<sup>25</sup> 의 연구에 의해 그 악기명칭이 고증되었다. <표 2>는 양악대 편성악기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양악대 편성악기

악기분류	한자표기	영어명칭
목관악기	大笛	flute
	小笛	Piccolo
	胡笛	Oboe
	最高音笙	Eb Clarinet
	高音笙	Bb Clarinet
	深音笙	Bass Clarinet
금관악기	最高音喇叭	Piccolo Trumpet
	最高喇叭	Bb Trumpet
	保續音喇叭	Horn, French Horn
	最强音喇叭	Flugel Horn
	強音喇叭	Alto Sax-horn/ Bb Tenor Trombone
	助深音喇叭	Tenor Trombone/ Bb Bariton-Saxhorn
	半深音喇叭	Alto Trombone/ Tenor Trombone
	深音喇叭	Bass Saxhorn/ Bass Trombone
	最深音喇叭	Tuba
	타악기	三角磬
鐵琴		Glockenspiel
小鼓		Snare Drum

<sup>24</sup> 장사훈, 앞의 책, p.717-722.

<sup>25</sup> 노동은, 앞의 책, p.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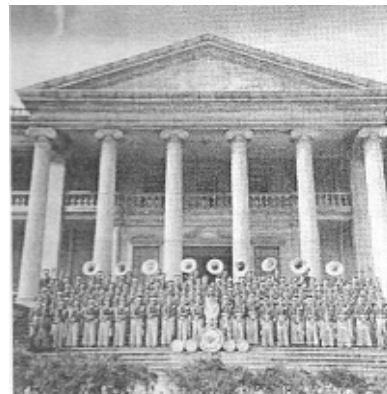
	大鼓	Bass Drum
	鈴鼓	Tambourin
	轉調片	Castanets
	正音器	Tuning Fork
	提琴	Cymbals

『증보문헌비고』에 의한 양악대의 악기는 모두 21 종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실제 사용된 악기의 종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악기명을 고증한 앞의 두 연구(노동은, 장사훈)에서도 보이듯이 한자로 된 악기명칭에 대입할 수 있는 악기는 여럿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04년에는 군악대의 인원수가 104 명에 달하여 창립 당시 50 명이었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규모가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악기의 추가 구입이 이루어졌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음의 사진자료를 보면 당시의 악대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 파고다 공원에서의 연주회 후의 사진



<사진 2> 규모가 커진 군악대의 모습

위의 사진자료에서도 보여지듯이 양악대로 인해 한국에 다량의 서양악기의 유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시위연대내의 군악대도 규모가 축소되고 장례원 소속의 ‘제실군악대’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당시 계속되는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파고다 공원에서의 시민음악회는



계속되고 있었다.<sup>26</sup> 그러나 1910 년 한일합병 이후 ‘이왕직악대’ 에 편성되어지면서 ‘아악대’와 구별하기 위해서 ‘양악대’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그러다가 악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 1915 년 악대는 해산을 하게 된다. 5 년 후인 1920 년 경성악대라는 민간악대로 다시 결성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1930 년에 이르러 완전히 해체되게 된다. 해체 후 양악대의 양악대원 중 20 여명은 학교로 들어가서 음악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1930 년 해산된 경성악대로부터 72 점의 악기를 기증 받은 휘문고보에서 학교악대가 창설되었으며,<sup>27</sup> 양악대원이었던 백우용, 김창희, 강홍준 등이 이 악대를 지도하게 된다.<sup>28</sup> 휘문고보의 악대에 이어 배제, 경신, 중동, 중앙 등 5 개 학교의 연합악대가 창설되었고, 1931 년에는 연희전문학교의 악대가 창설되어 활동하였다.<sup>29</sup> 이렇듯 양악대는 해체 후에도 학교 악대운동의 중심에서 한국의 악대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었다.

한국인 최초의 양악대장이었던 백우용은 양악대장 시절 여러편의 창가를 작곡했다. 1922 년 경에 출판된 『(조선지리)경개창가』에 수록된 38 편의 창가는 백우용이 작곡한 것이다.<sup>30</sup> 이외에도 1928 년 이왕직아악부로 파견되어 궁중의 아악을 5 선보로 채보 하였다. 플룻 주자였던 정사인은 송도 고등보통학교에서 학교 악대를 결성하여 음악교사겸 악대지휘를 하며 후학을 양성하였다.<sup>31</sup> 정사인도 여러편의 창가를 작곡하였다. 행진곡 ‘추풍’ ‘돌진’, 민요 ‘닐리리아’ 그리고 가곡 ‘타향’등이 그것이다. 특히 추색은 “내 고향을 이별하고”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일제시대에 가장 많이 불려지던 노래중에 하나이다.<sup>32</sup> 이렇듯 소위 양악 1 세대라 일컫는 백우용, 정사인등도 모두 양악대 출신들이었다. 이처럼 양악대는 영향력은 악대의 해체 후에도 한국의 양악문화의 전반에 미치고 있었다.

<sup>26</sup> 『대한매일신보』 1908 년 8 월 9 일자: 노동은, 앞의 책, p.652

<sup>27</sup> 정진섭, “Franz Eckert 가 한국군악대 형성에 미친 영향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50

<sup>28</sup> 남궁요열, 앞의 책, p.103-104

<sup>29</sup> 정진섭, 위의 글, p.50.

<sup>30</sup> 이강숙, 김춘미, 민경찬, 앞의 책, p.109-112

<sup>31</sup> 정진섭, 위의 글, p.41.

<sup>32</sup> 이강숙, 김춘미, 민경찬, 앞의 책, p.109.

## 결론

대한제국시기 형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악기 편성의 양악대는 왕실을 호위하는 군대인 시위연대 내에 소속된 군악대였다. 한국의 서양음악 수용에 있어서 양악대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주요한 영향을 끼친 요인이다. 더욱이 고종황제의 칙령과 함께 관 주도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양악대는 설립초기에는 ‘군악대’로 불리웠으나 1907년 일제에 의한 군대 해산 후 ‘제실군악대’, ‘이왕직양악대’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1915년 해산되었다가 1920년 ‘경성악대’라는 이름의 민간악대로 그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1930년에 완전히 해체되었다.

양악대는 한국에 있어서 최초의 서양악대였으며, 이 땅에 서양음악, 특히, 기악음악을 보급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양악대를 통해 대량의 서양악기들이 한국에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악기들로 인해 악대문화가 활성화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양악대가 배출한 인물들은 양악 1세대로서 한국의 서양음악의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양악대가 한국의 서양음악의 수용과 발전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8. 9.